

# 새마을금고와 地方行政支援에 關한 研究

## Saemaul Kumko and Support of Local Administration

李 圭 貳

(새마을금고聯合會長)

### <目 次>

- I. 序 論
- II. 傳來 韓國 固有의 協同運動
- III. 協同原則 異論 및 世界協同組合運動
- IV. 韓國 協同運動 接木과 새마을금고  
胎動 및 成長
- V. 地方行政 支援을 통한 새마을 금고  
重點 育成
- VI. 2000年代 새마을금고 育成方向과  
地方行政 支援
- VII. 結 論
- 참고문헌

## I. 序 論

###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새마을금고제도 창설의 배경과 당위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밟았으며 금고와 정부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 왔으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행정기관이 새마을금고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가. 배경

우리는 1945년 일제의 쇄사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오랜 역사를 통한 거의 숙명에 가까운 가난에다 일제의 구학과 착취로 거레는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된지 얼마 안되어 6.25전쟁이 일어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과 가재도구까지도 모두 불태워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원조로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빈곤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발전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선각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보자는 노력들을 하였다. 그것이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금고운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나. 당위성

1960년만 해도 농촌고리채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춘궁기(소위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어 농민들이 거의 절망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절망상태에 있는 농민들에게 근면과 자조와 협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 박정희대통령이었다. 주민들에게 근면할 것과 남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설 것과 혼

자서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일을 함으로서 능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게 했다.

다음 새마을금고 노래가사는 금고설치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서로 믿고 도우면서 살아온 겨레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아닌가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 이루듯  
새마을의 정성어린 마을금고

마을금고 통장속에 담겨진 뜻은  
번영과 통일의 등불이 되리

- 슬기롭게 한마음 이어온 겨레  
백지장도 맞들던 우리 아닌가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 이루듯  
새마을의 길잡이는 마을금고

마을금고 통장속에 담겨진 뜻은  
번영과 통일의 등불이 되리

이 가사는 상부상조와 회원들이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저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협동운동이론 중에서 소위 저수지 이론이다. 빗방울이 모여서 도랑물이 되고 도랑물이 모여서 시내물이 되고 시내물이 모여서 저수지를 이룬다. 다시말하면 회원들이 한푼두푼 저축한 푼돈이 모여서 금고의 자산을 이루고 저수지 밑에 뭉리지를 가진 사람은 저수지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회원중에 영농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은 금고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렇게 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도 돈을 빌려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고리대금을 쓸 필요가 없게되고 생업자금을 손쉽게 얻어씀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니 이 운동이 잘 되면 회원들의 생활이 점차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새마을금고가 생겨 난 시대적 배경은 지역 주민의 필요한 생활자금을 자체조달하여 自給하고 나아가서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성, 그리고 기여성에 의해 새마을금고가 생겨났으며 새마을금고는 현재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마을금고는 어떠한 배경으로, 왜 생겨났으며, 그리고 현재의 실체는 어떠한가, 정부는 무엇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마을금고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당위성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전래 한국고유의 협동운동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와같은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 졌는가를 연구한다. 제3장에서는 협동운동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운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세계협동운동의 개황과 협동조합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협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나를 연구한다.

제 4장에서는 한국협동운동이 어떻게 접목되어 새마을운동을 탄생시켰는지의 과정을 연구하며 새마을금고의 생성배경운영실태등을 연구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제 5장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하여 새마을금고가 크게 성장하였는데 무엇을 지원하여 크게 성장하였는지를 연구하고 제 6장에서는 새마을금고가 2,000년대에는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지를 지방행정지원과 연계하여 새마을금고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제 7장에서는 결론을 다루고 의견제시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새마을금고의 이론측면과 물질측면을 함께 다루되 금융기능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지원관계는 지방행정지원과 물질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II. 傳來 韓國 固有의 協同運動

### 1. 두레, 향약, 품앗이

‘두레’는 이미 2천여년전 ‘한사군’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장구한 세월을 이어져와 오늘날에도 일부 농촌지방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모임으로 두레조직이 활용된다.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이룬 부락이나 이동단위의 모임으로 알려진 ‘두레’의 어원은 울타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통적인 두레는 농번기에 리·동 단위의 모내기, 논매기, 추수등 공동작업이 필요한 때는 유지들의 결정에 따라 有司의 주선으로 모였다.

향약은 조선왕조 초기인 태조 7년에 처음으로 권선징악을 취지로 실시된 마을 자치조

직의 규약으로 본시 중국 송나라 때의 “呂氏 鄉約”을 본딴 것이다. 주자학과 거의 동시에 전래된 이 향약은 당초 “豐柿邑鄉約案”으로 불렸으며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네 綱目을 主 정신으로 삼았다.

향약이란 원래 同鄉隣里의 사람들이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상호간의 권선징악과 아울러 상부상조를 위하여 협정한 규약을 뜻하며 후에 와서는 그 조합 자체를 향약이라고 불렀던 것이다.<sup>1)</sup>

향약이 지방자치조직의 확고한 정책으로 채택되어 지역주민의 德化와 협동수단으로 강제된것은 명종11년 이황이 禮案鄉約을, 선조4년 이이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지역별 향약제정이 보편화되어 정착되었다. 특별히 유교적 도덕성이 강조되어 권선징악과 함께 의식개혁 목적도 두드러진 향약은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에 비유되는 것이다.

품앗이는 옛날부터 농사일을 비롯한 모든 힘든 일과 즐거운 일, 굶은 일을 당하여 아쉬운 때에 상부상조하던 것으로 오늘날에도 농촌지역에서 곧잘 활용되고 있다. 원래 “품을 지고 갚는다”는 의미를 띤 품앗이는 이웃이 협동단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美風良俗이며, 받은 만큼 돌려주는 원리는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공명타당한 방법이어서 오늘날의 새마을정신에 비유된다. 이상의 전통적 협동조직을 개관할때 ‘두레’ ‘계’는 적극적인

1) 허병희 「조선근의 향약자치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재학원 학위논문 (1987) p23  
김명진 ‘향약과 새마을운동과의 비교연구’ 새마을금고지 (1982. 5) p50

자구적 사업경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고 ‘사창’은 인보제도이며 ‘품앗이’는 상부상조 수단이고 ‘향약’은 행정방침이자 사회교육 운동으로 풀이된다. 각각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펼쳐진 이 제도들은 이념과 기능면에서 오늘날의 새마을금고 지도이념과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 2. 客主, 時邊, 外劃

객주는 지방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스스로 휴대해 온 물자, 또는 송부해온 물자를 보관하여 願買者를 찾아서 이를 매각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며 도매업, 창고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등을 겸했다.

또한 荷主나 牛馬에 대한 숙박업도 겸영하고 금융업, 즉 貸金, 예금 및 어음의 발행 인수업도 겸영하였다.<sup>2)</sup> 이를테면 화주가 화물을 운반해 왔지만 갑자기 販路가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시세가 맞지 않아서 거래는 할 수 없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 객주가 이러한 화물을 담보로 하여 화주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객주의 역할을 금융업과 비교해 보면 자연인의 화물이 담보로 되어 일반 상인의 금전 예치와 양반족의 유희자금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했다. 새마을금고와 연관해 보면 상호 부조적인 것을 엿볼 수 있고 무이자로 받아드리고 상인에게 화물을 담보로 융통해 주는 것이 금융기관 기능과 다를바 없으나 조직성, 영세성, 운영면 등이 현재 은행이 없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다.<sup>3)</sup>

시변의 기능은 대금업의 자금 유통범위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변은 개성상인 사이에서 행하여진 일종의 대금업으로서 한쪽의 유희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다른 한쪽에 자금수요가 있어서 그 중간에 換錢居間이 개재하여 무담보로 자금의 대차를 이루는 것이다.

이 시변의 특징은 落邊이라고 불리우는 금리 계산법과 이에 의한 단기 유희자금의 대부운용이 가능했던 점이다.<sup>4)</sup>

낙변이란 이율이 월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도중에 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4일 또는 5일마다 이율을 2.5%씩 저하시켜 26일 이후에는 그 달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지칭이다. 이 낙변에 의해서 數日의 단기라도 유희자금 이식의 길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즉시 차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즉시 대부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 상인이 보통 시재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필요가 생기면 환불하는 것과 실질상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외획은 일종의 換업무를 담당한 재래의 금융기구이다. 군수에 대하여 그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직접 제3자에게 급부할<sup>5)</sup> 託支部大臣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탁지부대신의 명령은 국고의 임시 차입금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관청이 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할 때, 高行爲上 환전금의 필요가 있는 경

4) 임전민, 「한국의 은행사」 한국경제문제연구소 (1963) pp16~17

이승윤 ‘한국의 금융제도와 정책’ 법문사(1983) p16

5) ‘탁지부대신’이라함은 구한말 시대의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던 부서로 오늘날 재무부장관에 해당됨.

2) 한국금융 25년사, 대한금융단(1967)참조

3) 조성연‘금융조직론’ 중앙교육원 출판부(1989) p11

우에 상인으로부터 이를 국고에 의뢰하였을 경우, 중앙관청의 공무원이 지방출장으로 여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관청의 송금 뿐만 아니라 지방관청의 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송금을 국고가 인수하고 있는 셈이 된다. 국고에서 임시 차입금의 필요가 있을때 중앙관청이 서울에서 상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반제 방법으로 당해 상인 또는 그 채권자가 지방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 환송금의 기능이 된다. 금융기관이 각 지방에까지 보급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있어서 이 외획제도에는 중앙과 지방간 또는 지방 상호간의 유일한 자금유통기구이다.

두레, 품앗이, 향약, 시변, 외화, 寶 등 옛날 우리 조상들이 협동사업이나 신용사업으로 이용해 온 이 제도들이 오늘의 새마을금고운동으로 제도면에서 직접 이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신만은 우리 새마을금고법의 목적으로 이어졌다. 1963년 재건국민운동에서 마을금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 그 금고제도를 구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상들의 얼을 되새긴 대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때부터라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1983년 1월 1일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새마을금고운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하였다.

이 운동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Ⅲ. 協同原則 異論 및 世界 協同組合運動

#### 1. 서두

영국 로잘레에서 처음(약135년전)으로 그들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협동원칙을 합의한 이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 원칙이 선언되었다. 그 당시 그들의 생활방식, 생활수준, 지역적 상황에 의하여 그들의 신념이나 확신이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러한 까닭에 1844년에 선언된 협동원칙은 현재의 지역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협동운동이 발전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협동가들의 상황이 변화되면 인간의 욕망이나 필요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협동원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오늘날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sup>6)</sup>

가. 한정, 한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에 의한 관념적 의미이나, 그래서 많은 이상들을 망라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나. 원칙, 원칙은 강력한 신념, 사고에 대한 절대적 신념, 상태나 사고의 표현에 대한 전체적인 확신으로서 그것은 안내(guiding

6)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Asian Credit Union Leader Lectures, HU-AI Communications Service Center Taichung Taiwan R.O.C (1971~78) pp196~205

light)이다. 그것은 자극적 요소(stimulating factor)이다.

다. 실제, 실제는 우리가 설파하는 것에 대한 일상생활에 적용, 생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 방법, 절차의 활용, 심지어 기교가 원칙을 확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내한다.

논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은 보통, 기본원칙을 희생하면서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논쟁은 중요하다. 협동가들은 협동운동의 향상 근면으로 인간생활을 향상하려는 본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원칙들을 옹호하고 지속하고 그들의 강렬한 신념으로 지지한다. 다시 이상은 원칙을 썩트게 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은 확신(firmness), 정의(fairness always)가 요구된다.

라. 적용, 협동원칙과 실제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틀림없이 그들은 피차 완전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부분에서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간에 자주 충돌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최소한 원칙과 실제 사이에 거리가 없어야 한다. 또한 협동기구의 긴밀한 유대가 이 원칙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세계협동기구가 통일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협동원칙을 고찰할까 한다.

## 2. 협동원칙

협동원칙은 19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①협동운동은 대중 다수를 위한 협동운동이다. ②회원가입은 개방이다. ③개인 스스로의 확신이나 신념을 통한 자발적이고 평이한 가입이나 가끔 강제적으로 가입된다. ④개인

적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평이하게 탈퇴할 수 있다. ⑤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⑥민주적 관리이어야 하며 ⑦비영리적 추구라야 한다. ⑧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이나 제한 대출금에 대한 정적이율은 미지급 계정에 기준을 둔다. ⑨협동조합은 종교, 정치, 인종 등에 대하여 중립이다. ⑩같은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회원에게 정의와 공평해야 한다. ⑪ 개인적 예금은 현금예금으로 구성된다. ⑫자유지원제로 시간, 재능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없고 임원, 이사회, 위원회 등에 무료봉사 한다. ⑬모든 회원에게 평등대우 한다. ⑭현금거래 원칙이다. ⑮우리 생활에서 고리채나 사채의 근절이다. ⑯봉사의 원칙이다. ⑰상호, 협조, 그룹의 사람들은 공통적 일부 이해관계가 있고, 일부 상호의존적이고 같은 방법의 필요가 있다. ⑱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 자치는 모든 수준의 협동개발에 있어서 필요하다. ⑲자립, 자존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의 원칙이 협동원칙으로서 오늘날 세계 협동기구에 받아들여져 이론을 이루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신념이나, 확신, 환경,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세계 협동조합 운동

### 가. 개황

협동조합 운동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대개 오웬주의의 발생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서유럽 각국,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 기반을 확립한 시기(1844~1899)로 로치데일 공정자 개혁조합이 경제사업에 뿌리를 박게

되자 이것을 본받아 소매협동조합, 도매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기고 연합조직으로 영국의 협동조합연맹이 창설되어 1990년말에 1,500개의 조합이 생겨났다.<sup>7)</sup>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의 농촌신협과 술체, 데리의 도시신협운동이 발전되었다. 농촌신협은 농민의 고리채 없애기와 농민해방을 위해 만들어졌고 도시신협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협이 생겨 양쪽에서 발전되었다. 프랑스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이 공장종업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겨난 협동운동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발전되지 못하다가 노동자 생산조합에서 제공한 기금에 의해 본격화됐다. 미국에서는 농민보호조합인 그레인저(Granger)가 1870년에 생겨났으며 오래가지 못하고 20세기에 들어서 협동조합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2단계는 (1990~1945) 독일의 신협운동과 영국의 소비자협동운동이 세계 각국에 소개되어 세계 1차대전까지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협동조합제도를 채택한 시기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서유럽 제국에서 발전을 거듭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일본 재정고문의 건의에 따라 1907년 지방금융법을 공포하여 일본의 산업조합법을 본받아 만들었다. 3단계는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부터 신생국가 및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되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다.

#### 4. 세계의 협동기구

신용조합(CU)의 계통조직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에 세계신용조합협의회(WOCCU)가 있으며 WOCCU에는 국제라이파이연맹(IRU), 국제공제협동조합(Cuna-mutual), 국제물자보급협동조합(Cuna-Supply)를 두고 있다. ICA는 1895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988년말 현재 76개국의 192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가 가입했다. WOCCU는 미국의 신용조합협의회 국제부가 1971년에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창설되어 7개지역 연합회와 4개국가 연합회가 있으며 조합수는 33,280개이며 조합원수는 73,549천명이며 약169조원이다. 아시아신용조합연합회(ACCU)는 태국, 방콕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1971년에 설립되어 정회원국 10개국, 준회원국 2개국의 조합수 8,939개 조합원 2,618천명, 총자산 약 22,322억원을 가지고 있다.<sup>8)</sup>

### IV 韓國協同運動接木과 새마을금고 胎動및 成長

#### 1. 한국 협동운동

우리나라의 근대적 협동운동 조직체의 효시는 구한말 정부가 공포시행한 지방금융조

7)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협 20년사」 신협연합회 (1980)p93

8) 새마을금고연합회 「국제 협동기구현황」 새마을금고연합회 (1990)참조

합규칙을 근거(1907)로 금융조합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 운동은 조선경제의 근대화운동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한 농공은행을 1년간 시험운영하다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우리나라 농촌의 전통적 조직인 계, 향약, 사창 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농민 스스로의 참여에 의한 농촌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토대 위에서 금융조합운동은 급속히 보급, 발전되어 1932년에는 전국 농민의 17%를 조합원으로 확보한 가운데 “농촌자력 갱생운동”을 빌려 부락마다 殖産契가 조직되어 활용되었다.<sup>9)</sup> 그러나 1940년을 고비로 전시체제의 통제경제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구관사업은 양곡배급통제조합으로 바뀌고 구매사업은 각종 생필품배급조합으로 전환되었다. 8.15해방 당시의 금융조합은 남북한을 합쳐 본소 732개, 지소 215개였고, 전국 농민의 3분의 2가 조합원이 되어 있었다. 대출액의 경우 일반은행 실적을 능가하였지만 설립목적과 달리 영세농민에게 수혜를 주지 못했다.

또한 전시체제하의 연속 수탈로 실패하여 우리 경제가 빈곤일로를 걷게 되자, 우국인사들이 정치의 한계를 느껴 협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춘궁기 농민을 구제하고 민족운동의 터전을 닦으려 했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관리들은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독립운동가”라는 구실로 조합해산명령 또는 자체해산을 강요하여 1933년 초기를 고비로 협동운동이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농업협동조합은 금융조합이 변신하여 1957년에 농협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생겼으나 경제사업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편과 신용사업을 겸해야 한다는 2분설에 따라 국회에서 농업은행과의 업무관장 논란이 있었으나 실패하여 기회를 잃고 있다. 5.16군사혁명 이후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됐다.

## 2. 협동과 잘사는 방법

협동은 자기확대의 원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協”이란 본시 의사합일의 정신적인 “化”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협동이란 여러사람의 힘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뭉친다는 뜻이며 근원적으로 정신적인 동물인 사람의 정신적인 협력은 “단순한 힘의 보탬을 넘어서 새로운 힘의 창조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sup>10)</sup>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협동으로 이어지는 근면, 자조정신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새마을금고 태동

새마을금고를 협동조합운동에 접목시키려는 구상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류달영교수가 1961년 8월 28일 제2대 재건국민운동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금고”가 처음으로 순수한 재건국민운동 정신의 지도이념 아래 독자적인 체계로 발돋움한 것은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발족되면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유덕천의 정책입안이 채택('64.8)되면서였다고 보고 있다.

9)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 25년사’ p60

10) 유병오 「지방행정」,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0)pp53~54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불안이 없는 사회, 행복하여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 기회의 균등이 부여되는 사회, 주권이 존중되는 사회, 우애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보고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①우애와 협동이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②조직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성원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성실, 근면, 인내, 창의, 봉사, 협동) ③생활의 안정을 사회의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 ④모두가 경제, 사회, 문화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⑤작은 힘을 모은 모두의 힘으로 큰 힘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건설로 지향하는 실천과제는 마을금고<sup>11)</sup>와 재건학교의 2대사업이라고 설정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경남 의령에서 1963년에 새마을금고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최초의 금고는 下純금고로 밝히고 있다.<sup>12)</sup>그러나 새마을금고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국규모로 전개된 것은 1970년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제기 후라고 할 것이다.

#### 4. 새마을금고 운영실태

새마을금고는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인보협동하여 근검, 절약, 저축을 통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으로 자기발전, 지역발전 및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조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협동의 실

체이다. 새마을 금고는 조직면에서 자주조직, 협동조직이며 정신면에서 자주조직이며 정신면에서는 민족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운영면에서는 자치적 운영과 자율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면에서는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한다. 그리고 목적면에서는 회원발전,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도모하여 다같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1990년 3월 현재 3,283개이며 총 회원수는 5,573천명, 총자산은 55,003억원이 조성되어<sup>13)</sup> 영세회원의 고리채 정리자금, 생활자금, 영농자금, 사업자금, 주택마련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자금의 지급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금고간 자금 과부족 조절기능을 위한 신용사업을 연합회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사고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금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5.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자금중심 협동운동

새마을금고운동은 돈을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이다. 협동이란 말 가운데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 있고 서로 돕는다는 뜻 가운데에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운동은 사랑의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새마을금고를 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이다. 여기서 서민층이라고 말한 것은 신분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돈이 없는

11) 마을금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상요한 최초의 자료로 밝히고 있음.

12)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 25년사」 p87

13)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새마을금고연합회 출판부 (1990. 6) p5

14) 이규이, 「봉무」 정영출판사 (1988) pp147--148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절미운동 등으로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잘 살아 보자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앞서 언급함과 같이 백지장도 같이들면 가볍다는 협동원리에 근거한다. 조그만 계곡의 물이 모여들어 큰 저수지를 만들고 농민들이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것과 같이 여러사람들이 한푼두푼 절약하여 금고에 예금하여 돈의 저수지를 만들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금고에 예금하여 이자와 배당을 받는다. 예금하는 사람은 금고자금을 만드는데 참여함으로써 대부사업에 기여하게 되고 대부받은 사람은 그 돈을 생업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 서민으로는 남의 돈을 빌려쓰기 어려운데 쉽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이 되며,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합하여 한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 V. 地方行政支援을 통한 새마을금고 重點 育成

### 1. 새마을금고의 제창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멀지 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뀌어지리라고 확신한다.<sup>15)</sup>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새마을 운동을 제창했다. 1971년에는 전국 33,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대씩 지원하여 마을진입로 공동빨래터, 퇴비장 설치, 마을식수 문제들을 정비 또는 개선했다.

내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문교부 및 농협에 새마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시도, 시군구에 새마을지도과를 신설(1973.2.1)하여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을 지방행정기구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원도 1963년에 설립하여 1989년말까지 총 145,507명을 교육시켰다.

### 2. 정부의 마을금고 중점육성 지원 지시

정부주도 새마을운동 열기는 1977년초를 고비로 더욱 광역화되어 새마을국무회의(1977년 2월 11일)는 새마을사업의 3대운동을 농어촌새마을과 공장새마을 및 도시새마을로 할 것을 결의하여 영역을 넓히고 5대시책을 의결하였는데 5대시책중의 하나가 중점지원 1순위인 마을금고 육성지원이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중점지원에 힘입어 마을금고가 크게 확산되었으며 각 시도의 구청에 마을금고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마을금고연합회와 같이 금고설립, 육성업무를 앞장서서 지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은 새마을금고 지도

15) 내무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연표」참조

16) 중앙교육원 「89교육종합분석」 중앙교육원출판부 p132

자 및 공무원의 금고설립 육성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조성이 되어 금고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 3. 정부재산의 사용, 수익자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sup>17)</sup>하고 있다. 첫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 및 연합회가 필요시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sup>18)</sup>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이러한 토대의 배경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당시 취약하여 자체적 건물 또는 회관을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행정읍, 면, 동사무소의 한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했고 심지어는 소모품, 집기, 전화사용 등을 의존하는 사례도 많았다.

오늘날 이러한 지원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자립기능을 갖지 못한 일부 금고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예가 있다.

### 4. 새마을청소년학교 운영지원

1964년 8월 민간기구로 발족한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전국의 많은 불우한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역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을금고운동과 함께 재건학교 운영을 2대 주요사업으로 택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로 1965년에는 전국의 264개 재건학교에 15,000여명의 학생<sup>19)</sup>이 “배우면서 일하자”는 것을 주창하면서 개시되었다. 1967년에는 952개교에 달했으나 중학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1975년에 재건국민운동본부 해체와 더불어 연합회에 승계되어 새마을청소년학교로 바뀌게 됐다.

내무부는 이에대한 운영개선 계획을 1978년에 시달하여 부실운영 학교를 개선하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개발의 선도적 역군으로 양성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1978~1983년까지 343개 학교에 375,449천원을 지방비로 지원하여 불우한 청소년 교육에 기여했으며 이들은 오늘날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의 여러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으며, 13만명이 넘는 역군들이 배출됐다. 그러나 교육은 전문성이 있어야하므로 1986년 10월 25일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발효로 43개 학교가 문교부에 이관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생능력이 없어 폐쇄 또는 정리되었다.

17) 「새마을금고법」 제 3조

18) 새마을금고연합회 기획관리실 자료, 국비 또는 지방비를 1985년 자립시까지 4,658백만원 지원

19)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 25년사」, 새마을 금고연합회출판부(1989) p130

### 5. 중앙교육원 건립자금 지원

새마을금고는 교육으로부터 발전하였다. 많은 새마을금고 지도자를 양성하였는데 이러한 새마을금고 지도자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마을금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위해 교육시설이 필요했고 새마을금고는 이를 충족할 자금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8년 4월에 내무부에서 343백만원의 교육원 건립자금을 지원하여 서울 수유동 522의 31에 새마을금고중앙교육원을 건립하였다.

이 교육시설은 새마을금고 지도자를 합숙시키는 교육시설로서 동시에 4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며 금고의 이념과 원리, 법규, 여·수신업무, 회계·세무, 금고인의 역할 등을 현재까지 145,507명을 합숙교육시켜<sup>20)</sup> 많은 지도자들이 금고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숙지함으로써 금고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와같은 것은 일찌기 정부가 교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6. 안전기금 지원

안전기금제도는 새마을금고의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금고가 사고 발생시 회원에 대한 예·적금을 대위변제하여 주는 금고연합회의 사고금고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이다. 이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안전기금은 금고의

출연금, 정부에서 지원한 사고보전금의 회수 및 그 부대이자 수익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에서는 1981년에 2,442백만원, 1985년에 2,000백만원 도합 4,4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금은 사고금고에 무이자로 지원되어 이자수익으로 사고금을 보전하고 원금을 회수하여 안전기금으로 사용<sup>21)</sup>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고보전금은 사고금고를 정리하고 자생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으며 이에 힘입어 오늘날 금고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7. 새마을금고지도자 포상

마을금고운동에 공헌한 지도자에 대한 포상은 1973년 1월에 제정된 “새마을훈장 포상제도”에 의해 1975년 난곡마을금고 정현모이사장에게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 협동장과 공동구판장 11,250천원을 상금으로 받게 되고 이것을 필두로 전국 새마을금고지도자 대회(1978년 3월 4일), 새마을지도자대회(매년), 새마을금고 저축2조원 달성 촉진대회(1985년 4월 12일) 등에서 많은 마을금고지도자들이 훈포장과 격려금을 받아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으며 새마을금고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조성을 했다.

### 8. 마을금고 공동사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지원

21) 금고법 부칙 제9조에서 ‘사고보전을 위해 이미 조성된 사고보전금을 이 법에 의한 안전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중앙교육원 「교육종합분석」, 중앙교육원출판부 (1990) p133

품질이 좋은 생필품을 일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구판사업이 1964년부터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1974년에는 500개 내외가 운영<sup>22)</sup>되었으나 각종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결손상태를 면키 어려워 이에대한 해결요구를 내무부에 건의하여 해결되므로서 마을금고의 법인세, 영업세(당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같은 것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금고 법인세는 일반법인이 27%에서 30%를 과세되는데 대해 5%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금고 회원의 예탁금 1천만원, 출자금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감면받고 있다.

또한 인지세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예탁증서, 원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세에 대해서도 비과세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한 사업소세를 비과세하고 자산재평가세 및 재무제표 무공고 가산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sup>23)</sup>

## VI. 2000年代 새마을금고 育成方向과 地方行政 支援

2000년대에는 전국 금고의 자산이 약 5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

1인당 약1000만원을 예금하는 셈이다. 이것으로 2000년대의 우리 회원들의 생활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금고 자산을 이용하여 연간 자산의 10%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5조원이 된다. 그리고 이 5조원의 1%를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사용한다면 500억원이 된다. 이 500억원을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이나 문화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지역사회복지가 급속히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을금고가 사실상 문화복지센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서 또한 계속 투자가 되어 유지 발전이 잘 될 것이다. 이와같은 전망 아래 우리 마을금고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①지역, 사회, 경제주체로서의 새마을금고 ②지역사회 문화복지센타로서의 새마을금고 ③새마을금고 자원지도자의 역할 ④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업무처리 ⑤금고 회원의 복지수용 ⑥새마을금고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한다.

### 1. 지역, 사회, 경제 주체로서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며 이 마음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므로써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새마을금고운동의 이념과 취지에 동조하고 많이 참석하여 지역자본(마을금고에 예금)을 많이 형성하고 이와같이 하여 형

22) 「금고 25년사」 p298

23) 조성연 「새마을금고세무」 새마을금고연합회 (1990) p292~320

성된 자금이 회원들의 생업자금이나 가계자금 등으로 잘 활용이 되고 나아가 잉여자금은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가득한 이익금은 회원에게 출자배당하고 일부는 기업저축(각종 적립금)하고 나머지 잉여금으로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금고상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금고의 힘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미 우리 금고중에는 자산이 300억원이 넘는 금고가 생겨났다. 200억원이 넘는 금고는 더 많아졌다. 이런 금고는 앞으로 10년후에는 1000억원이상의 금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산이 1000억원이면 년 수익율을 10%로 보고 100억원이 되며 그 10%를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사용한다면 10억원이 된다. 우리금고의 공동유대권은 面과 洞이다. 면동단위 지역사회에서 일년에 10억원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같은 금고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이나 면에서 금융거래(공공요금 대납)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을금고 회원으로 적극 가입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회원의 자격으로 금고발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고가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때 인허가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 그만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정부에서 조세감면법의 혜택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금고는 발전할 것이며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사회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새마을금고

현재 우리금고에서 조성한 자산 약 6조원(1990년 6월 1일 현재)은 회원의 사업 및 영농자금에 32%, 주택자금에 16%, 학자금과 가정의례자금 6% 기타의료나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외에 탁아소, 유아원, 경로당, 도서관, 무료예식장 등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금고의 원래 목적이 신용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있으므로 금고자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앞으로도 사회개발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 8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비율대로면 2000년대에는 연간 800~1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사업을 하려면 토지취득, 건물신축, 도로사용 상수도, 하수도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와같은 사업들이 잘 되려면 행정기관이 자기가 직접하는 사업과 같이 생각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면장이나 동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좋은 자문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새마을금고 자원지도자의 역할

전국에 약 37,000명의 금고 임원들이 있는데 그중 약 800명 정도가 상근임원(대부분 보수받음)이고 나머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다. 협동운동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있는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volunteer participant)와 그 역할이 중요하다. 88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훌륭했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은 누구나 자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자원지도자중에서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임원들은 자원봉사자 중의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사회나 총회 등 회의에 참여하여 여러사람의 의견의 합의절차도 체험으로 배우고 또 이들은 연합회 교육원에서 교육도 받음으로 근면, 자조, 협동, 저축 금고윤리 등 정신을 생활화해 갈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이와같은 건전한 국민정신을 전달도 하고 있으므로 금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역지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줄로 믿는다. 우리 한국사회의 지도급 인사는 농촌이나 도시에서나 한사람이 여러가지 공사직분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우리 금고 임원들이 다양한 다른 봉사들을 하고 있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분들이 많이 의원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우리 임원출신들은 근검, 저축 등 건전한 국민정신이 생활화 되어 있고 민주주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어느 의원들 보다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자세로 참여하므로 지방의회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실 마을금고인들은 회계나 부기업무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큰 사고없이 금고가 경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이사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이나 신임이 두터운 분이 당선되고 이분들이 사심없이 일해주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면장이나 동장이나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 각급관서장들이 그들을 잘 지도하고 편달해 준다면 금고는 더욱 잘 발전될 것이고 금고가 잘 발전되면 지역사회도 안정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 4.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업무처리

정보화의 물결(The third Technological Revolution)이 우리금고라고 불어오지 않을리 없다. 이 물결을 겁내서 물결을 타고 넘지 않으면 결국은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마을금고로서는 급한 것이 자체건물이다. 자체건물이 있어야 전산시설이나 사무자동화기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 임대건물에 고정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이사할 때 이사비용도 비용이러니와 시설을 옮기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 회원을 위한 서비스가 질을 향상하려면 컴퓨터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처리를 해야 할 만한 사무량이 있어야 하고 시설투자를 할만한 돈이 있어야 한다.

연합회 판단으로는 금고의 자산이 20억원은 되어야 컴퓨터 시설을 할만한 적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사업투자에서와 같이 비씨레이션(B/C)이라던가 프로맥스(Profit Maxmization)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고의 전산화를 위하여 연합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아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준팩키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컴퓨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고, 셋째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

다.

다음은 전산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통장 인쇄기라든가, 환전기 등 자동업무처리기기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예금 예·인출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짜증을 내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회원을 잃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자동사무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금고회원의 복지수용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문화복지국가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라든가, 의료보험제도라든가, 영세민 구호제도라든가, 실업보험제도라든가, 노인연금제도 등이 정착하게 되면 어느 학자가 말한 것 같이 국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저 문화생활의 보장을 받게 된다.

나라의 제도와 관계없이 우리 금고인들은 금고인의 힘으로 금고인의 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여 작년(1989년)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때 금고단위에서도 회원간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연합회와 금고가 힘을 합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나아가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임원들을 위하여 연합회에 복지기구를 설치하여 연합회 직원과 임원들을 합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계니 감장계니 결혼계니 하여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모임을 갖고 상부상조하고 있다. 이런것을 금고단위로 하

면 더 공신력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회원과 금고 임·직원간에 더욱 끈끈한 인정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우리 고유의 민속적 전통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 상호간에 전전하고도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고 발전되어 나가면 주민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역풍토가 이와같이 개선되어 나간다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협조적이 될 것이므로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 6. 새마을금고와 국제협력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시아신용협동조합연합회(ACCU)와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WOCCU)와 세계협동기구(ICA)등에 가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의 협동조합 예를 들면 미국의 큐나(CUNA), 독일의 라이파이젠(IRU)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방문하는 계기가 되면 서로의 이해가 증진되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금고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6조원이란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다.

필자가 생각할 때에는 세계적으로도 민간운동으로 이 정도의 조직과 재산을 가진 조직이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느면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배울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험을 못사는 나라에 알려 우리와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세계인 속에서 사랑의 이웃돕기에 한 몫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VI. 結 論

새마을금고운동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한다”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함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논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래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한푼두푼 번 돈을 저축하고 금고는 주민들이 한푼두푼 예금한 돈을 자산으로 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은행이나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일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스스로 향상되며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은 연합회에 기탁하여 전국 금고의 자금수급을 조절하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투자자금으로 돌려 국가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금고 초창기에는 경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직원을 채용할 만한 경비도 없어서 이사장이 단기식 부기를 직접한 일도 있고 집이 없어서 면이나 동회 사무실의 한 구석을 빌려 쓰기도 하였다. 이 기간중에는 자원지도자인 이사장들이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노력을 하였고 정부나 행정기관의 육성지도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금고 역사가 새마을운동 역사보다 길지만 1970년대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제창과 실천으로 가열화 되어 급성장할 하게되었다.

70년대의 금고는 50,000에 가까운 금고와 800만이 넘는 회원으로 급성장 했지만 이념도 경험도 없이 세만 커져서 각종 사고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아 일대 수술적 대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이 필

요하게 되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고 안전관리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금고가 파산되어도 회원의 예·적금은 보호해 주도록 하여 금고는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현재는 6조원이라는 많은 자산을 형성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서민은행 역할을 하며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복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세감면법의 시한이 1991년인데 이것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금고나 분소의 설치인가도 보다 손쉽게 해주어야 하며 권위적인 지도감독 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복지사업 투자 등에 있어서는 읍, 면, 동장들이 좋은 상담역이 되어 주어야 하며 회관건립이나 금고의 각종 행사 때는 시장, 군수들이 직접 참가하여 격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군청의 행사나 시·군청의 민간 참여 기회에는 금고 이사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본인에는 인정감을 주고 시정에 대하여는 널리 회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크면 분가를 시키고 분가한 다음에는 자식의 가사에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음과 같이 금고가 독립채산 위에서 자립해 나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금고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 주고 상담역과 같은 지위에서 금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틀림없이 2000년대에는 그간에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세를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므로서 갚는 시대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통계” 새마을금고연합회 출판부 (1990. 6)
2. 김기옥 “새마을금고법요론” 대왕사 (1987)
3. 조성연 “금융조직론” 중앙교육원출판부 (1989)
4.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 25년사” 새마을금고연합회출판부 (1989)
5. 허병희 “조선조의 향약 자치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대학원 학위논문 (1987)
6.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25년사” 대한금융단 (1967)
7. 임전민 “한국의 은행사” 한국경제문제연구소 (1963)
8.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Asian Credit Union Leaders Lectures Au-AI Communications Service Center (1971-78)
9.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협 20년사” 신협연합회 (1980)
10. 유병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0. 4)
11. 이규이 “봉무” 진영출판사 (1988)
12. 중앙교육원 “89교육종합분석” 중앙교육원출판부 (1990)
13. 조성연 “새마을금고 세무” 중앙교육원출판부 (1989)